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CATI & ARS

제41차 CATI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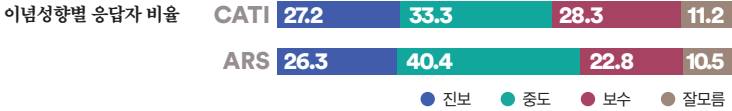
제56차 ARS조사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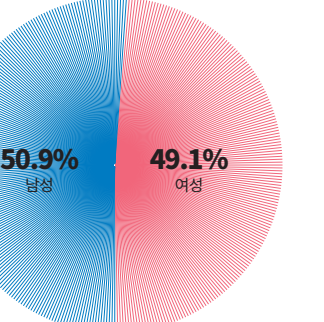
보고서

CATI &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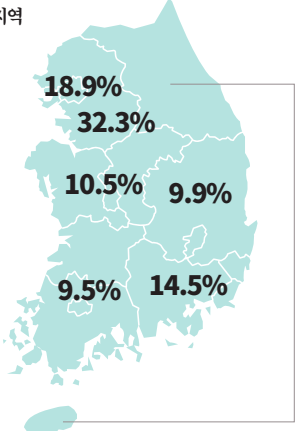


CATI 조사개요

모 집 단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응답자 특성			조사원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배율	성별			지역	
표본크기	1,011명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B/A)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전체		1,011	100.0%	1,011	100.0%	1.00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성별	남성	515	50.9	502	49.7	0.97					
조사방법	통신3사(전체 30,000개 / SKT: 15,000, KT: 9,000, LGU+: 6,000) 제공 무선가상번호 활용 CATI 전화면접조사			여성	496	49.1	509	50.3	1.03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3년 9월 30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연령	만18~29세	173	17.1	164	16.2	0.95					
응답률	10.2% [총 통화시도 9,865명]			30대	159	15.7	151	14.9	0.95					
조사기간	2023년 10월 06일 ~ 10월 07일(2일간)			40대	186	18.4	182	18.0	0.98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50대	192	19.0	197	19.5	1.03					
				60대	166	16.4	173	17.1	1.04					
				70세 이상	135	13.4	144	14.2	1.07					
			지역	서울	191	18.9	190	18.8	0.99					
				인천·경기	327	32.3	323	31.9	0.99					
				대전·세종·충청	106	10.5	106	10.5	1.00					
				광주·전라	96	9.5	98	9.7	1.02					
				대구·경북	100	9.9	98	9.7	0.98					
				부산·울산·경남	147	14.5	152	15.0	1.03					
				강원·제주	44	4.4	44	4.4	1.00					



성별	비율
남성	50.9%
여성	4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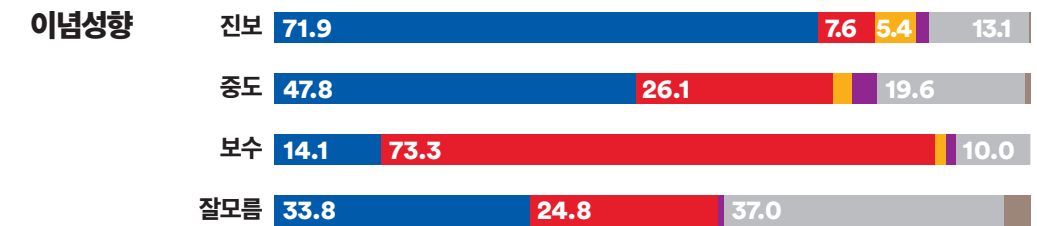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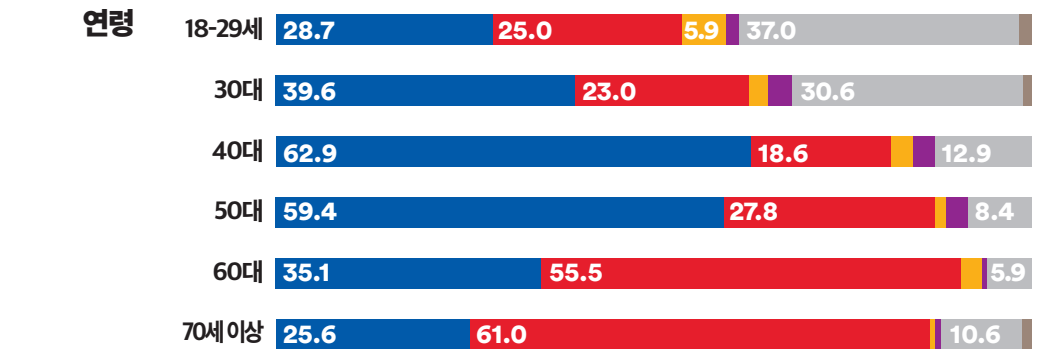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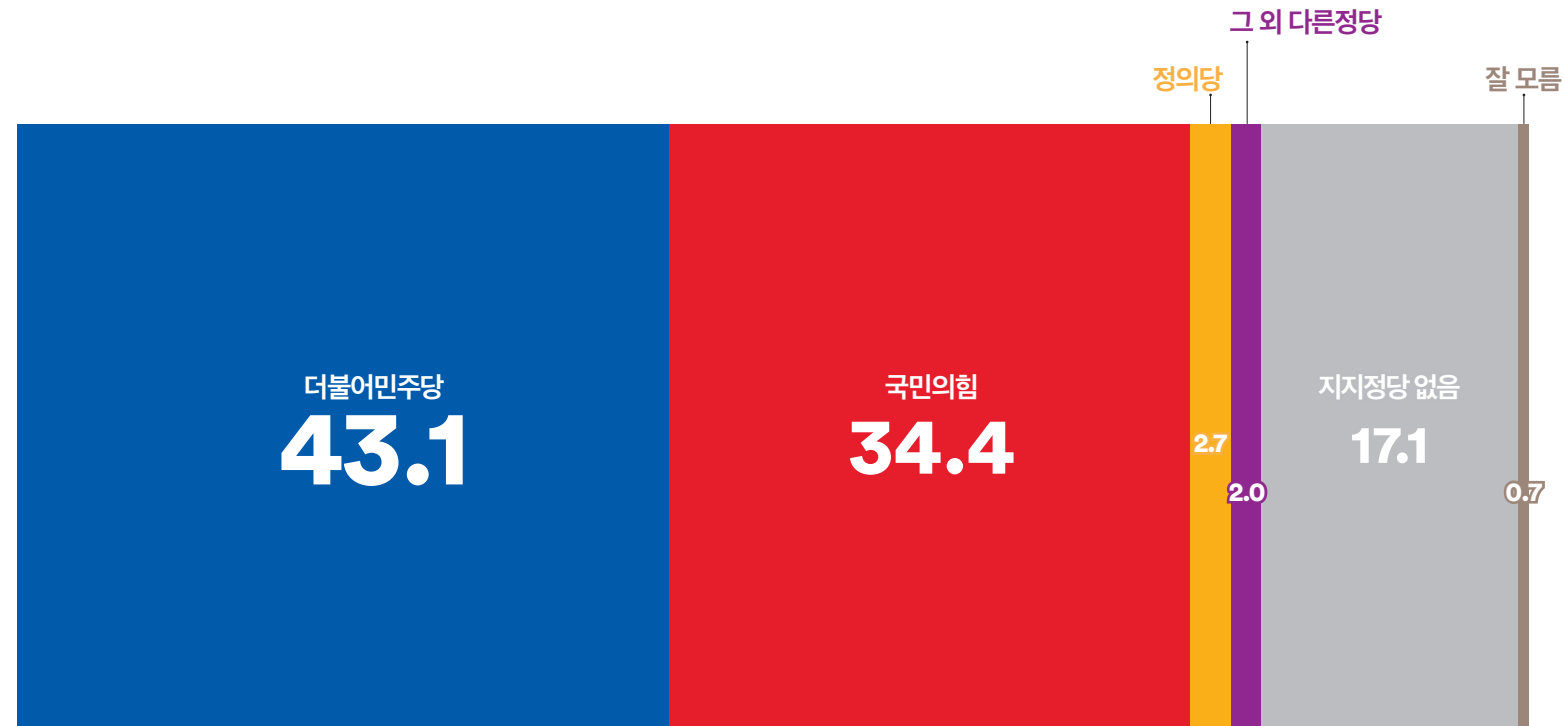
지역	비율
서울	18.9%
인천·경기	32.3%
대전·세종·충청	10.5%
광주·전라	9.5%
대구·경북	9.9%
부산·울산·경남	14.5%
강원·제주	4.4%

ARS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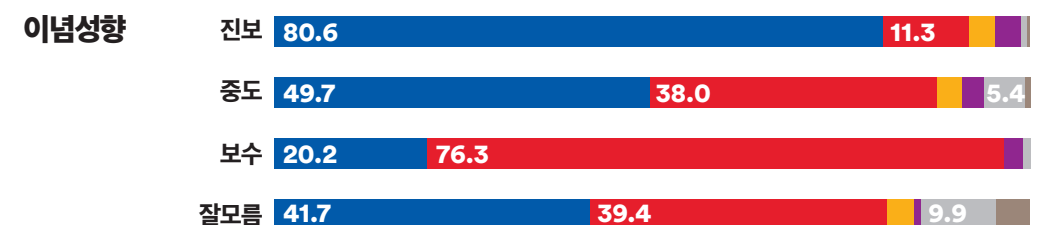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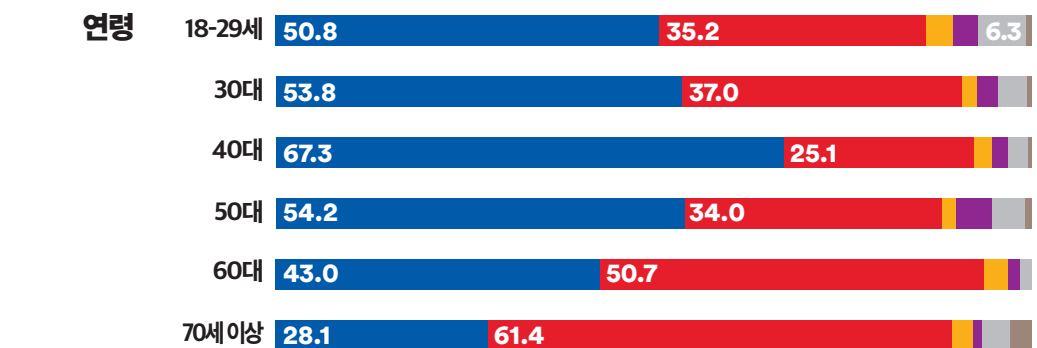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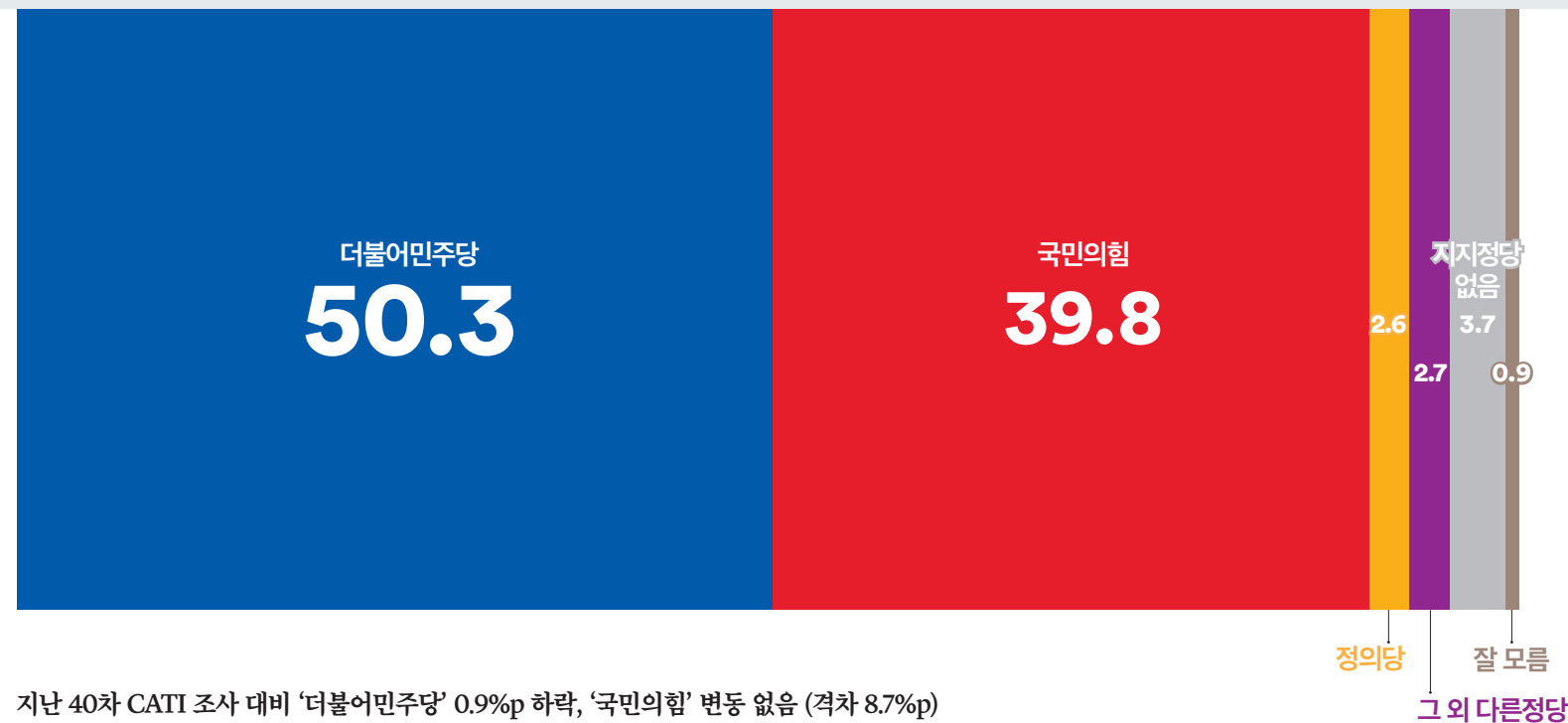
모 집 단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응답자 특성			조사원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배율	성별			지역	
표본크기	1,006명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B/A)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전체		1,006	100.0%	1,006	100.0%	1.00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성별	남성	519	51.6	499	49.6	0.96					
조사방법	무선(100%) RDD 활용 ARS조사			여성	487	48.4	507	50.4	1.04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3년 9월 30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립가중)		연령	만18~29세	120	11.9	163	16.2	1.36					
응답률	2.3% [총 통화시도 44,591명]			30대	150	14.9	151	15.0	1.01					
조사기간	2023년 10월 06일 ~ 10월 07일(2일간)			40대	195	19.4	181	18.0	0.93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50대	214	21.3	196	19.5	0.92					
				60대	186	18.5	173	17.2	0.93					
				70세 이상	141	14.0	142	14.1	1.01					
			지역	서울	193	19.2	188	18.7	0.97					
				인천·경기	319	31.7	322	32.0	1.01					
				대전·세종·충청	106	10.5	106	10.5	1.00					
				광주·전라	95	9.4	98	9.7	1.03					
				대구·경북	102	10.1	98	9.7	0.96					
				부산·울산·경남	146	14.5	151	15.0	1.03					
				강원·제주	45	4.5	43	4.3	0.96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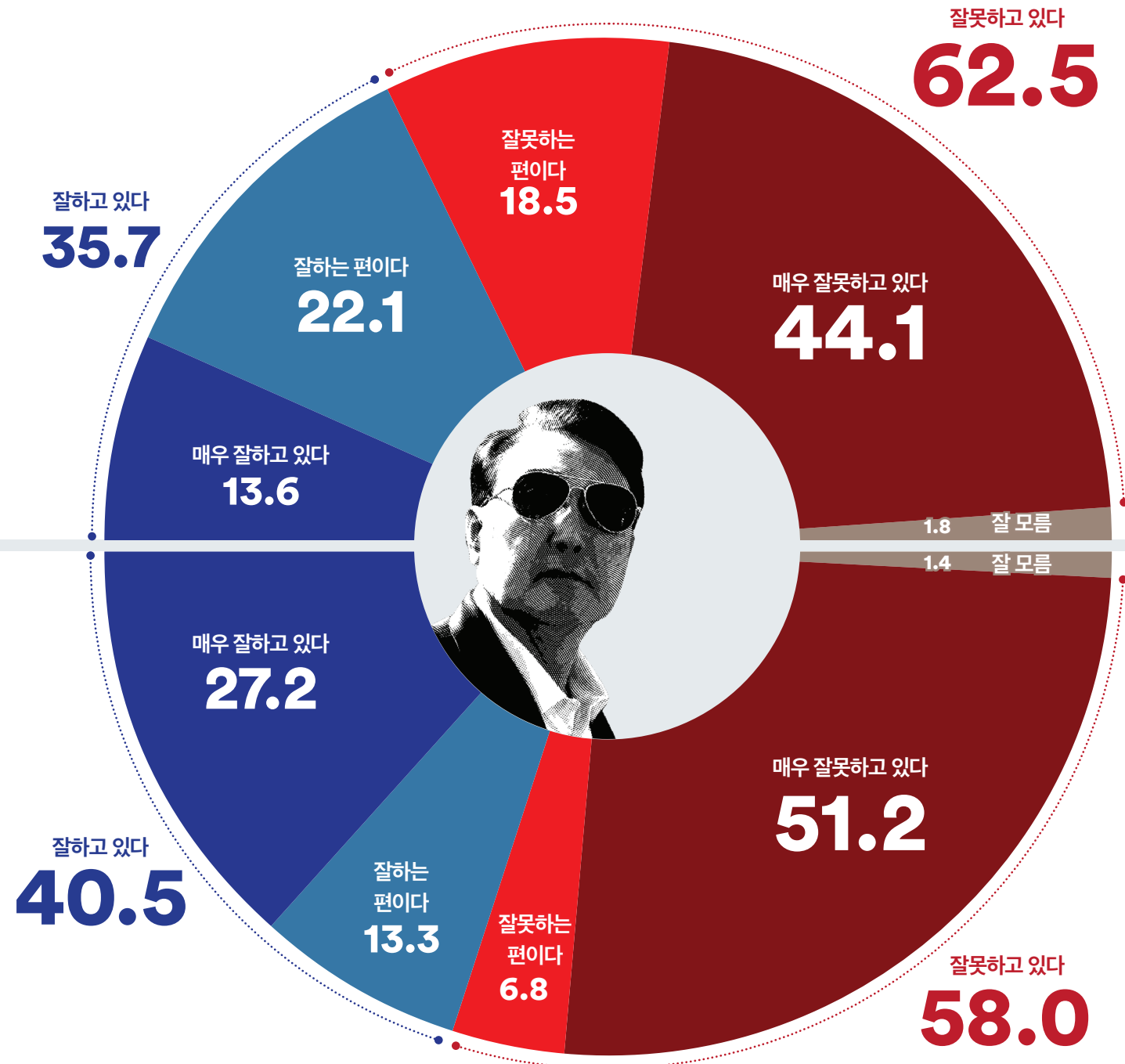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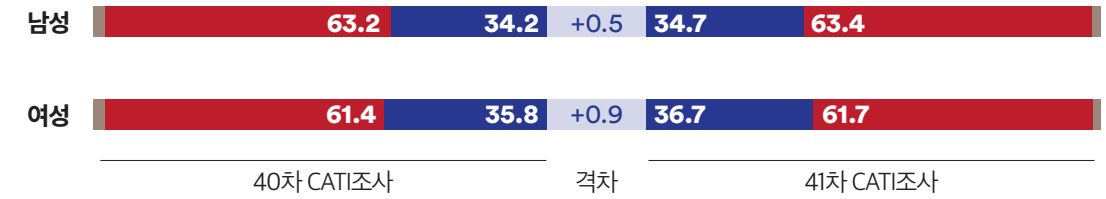
지난 40차 CATI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0.9%p 하락, '국민의힘' 변동 없음 (격차 8.7%p)
 지난 55차 ARS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3.7%p 하락, '국민의힘' 4.5%p 상승 (격차 10.5%p)
 전주 대비 '더불어민주당'은 하락, '국민의힘'은 정체/상승
 두 조사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하나, CATI 조사에서는 39차 조사 이후 양당 간 격차가 감소세를 보임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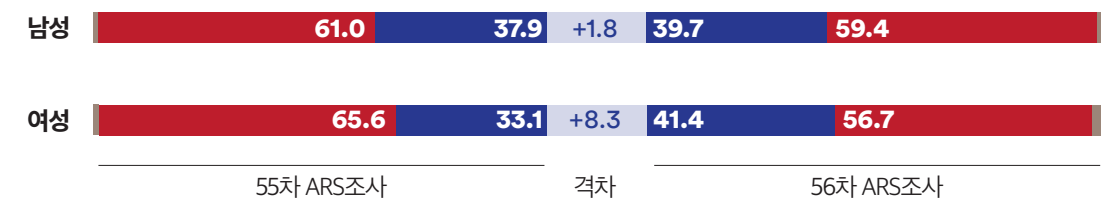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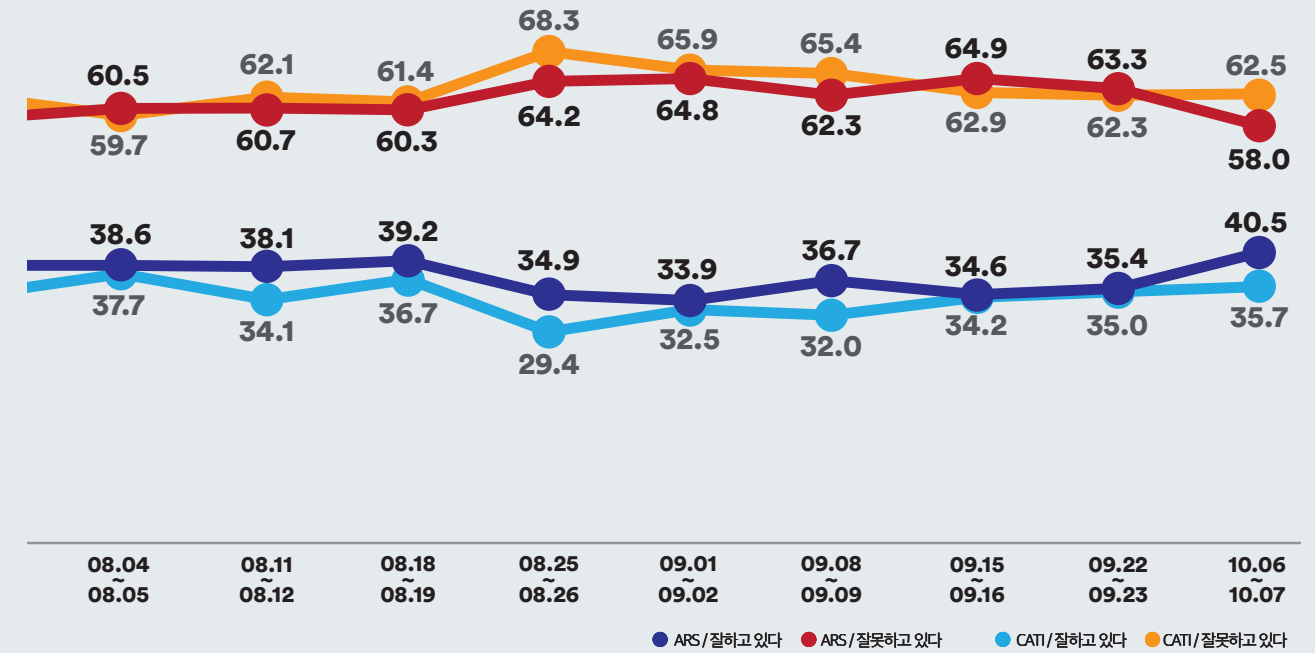
CATI



지난 40차 CATI 조사 대비 '긍정' 평가 0.7%p 상승, '부정' 평가 0.2%p 상승 (격차 26.8%p)
 지난 55차 ARS 조사 대비 '긍정' 평가 5.1%p 상승, '부정' 평가 5.3%p 하락 (격차 17.5%p)
 남·녀 모두, 50대 이하 응답층에서는 '부정' 평가, 70세 이상에서는 '긍정' 평가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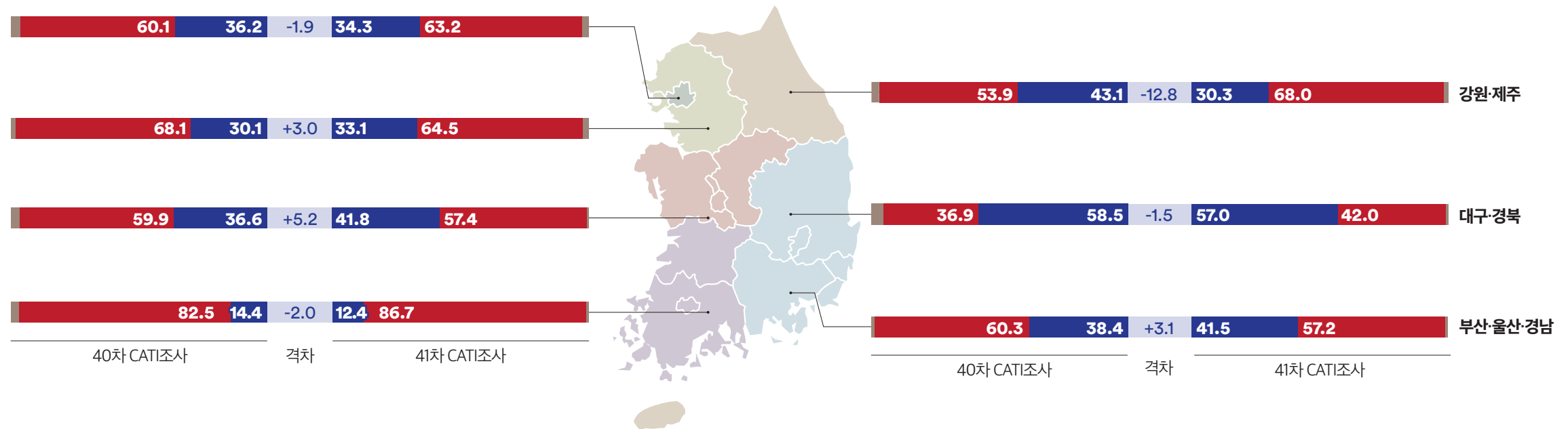
주차별 국정운영평가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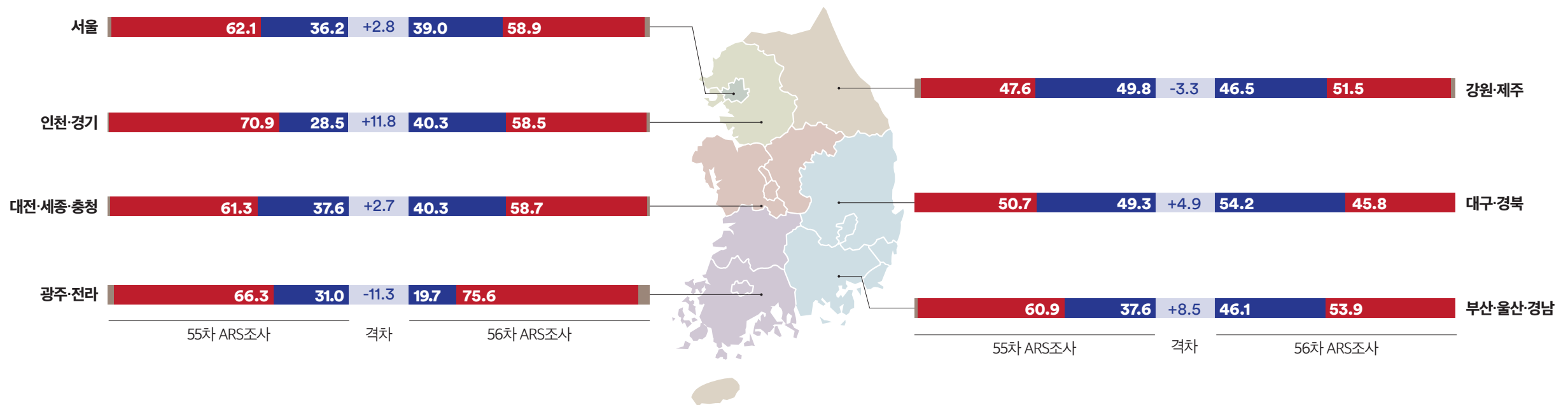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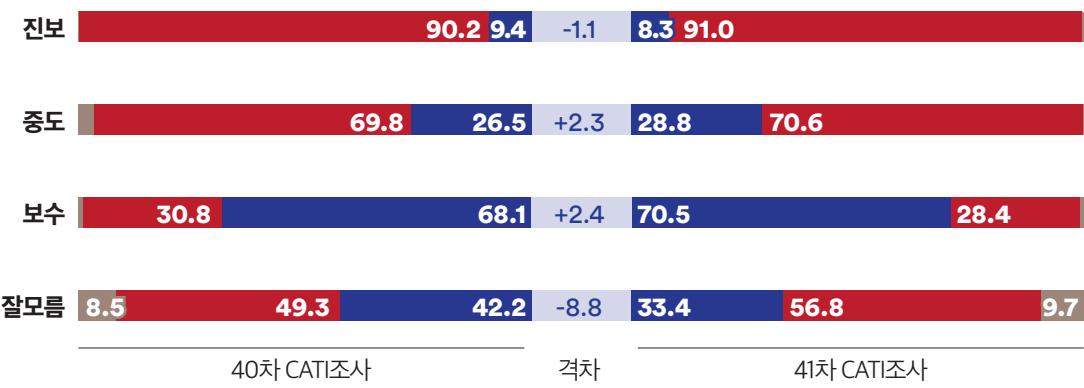
권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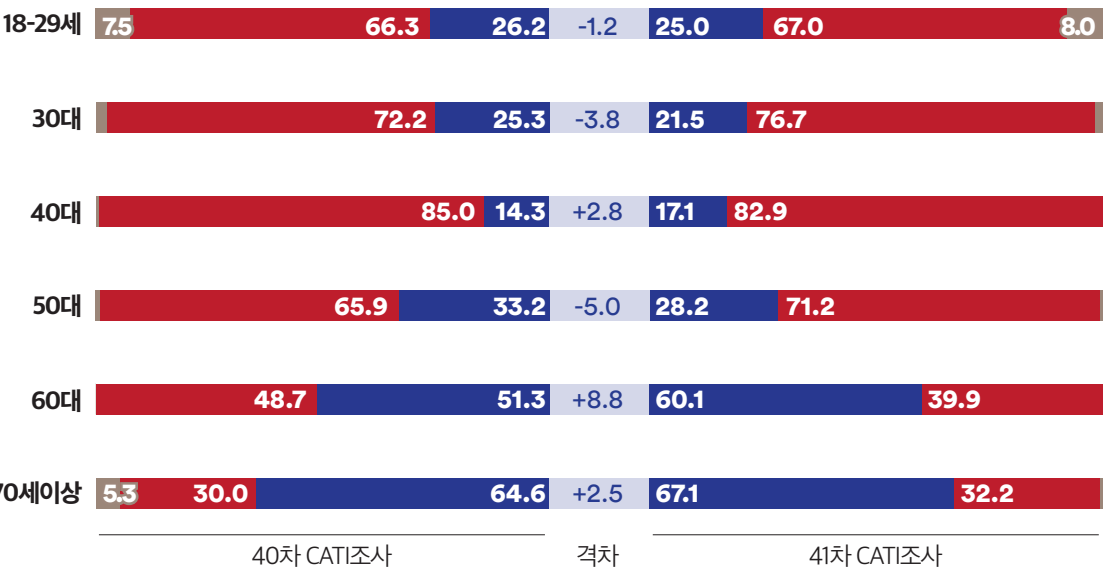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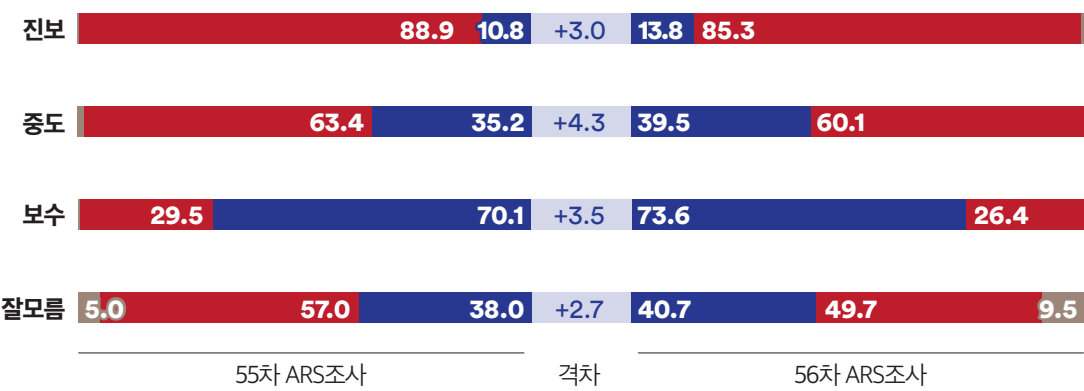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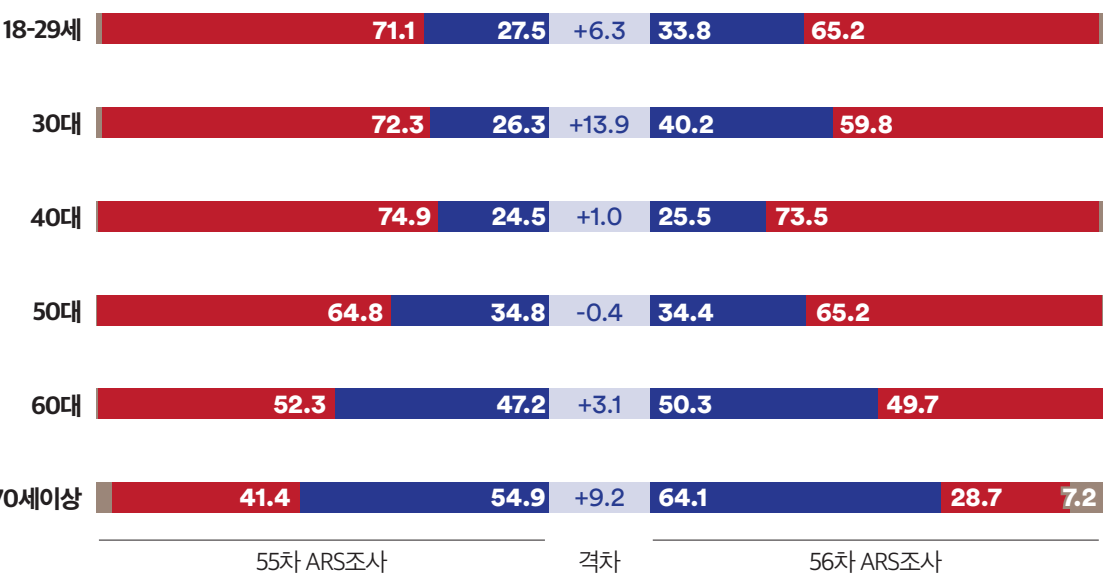


ARS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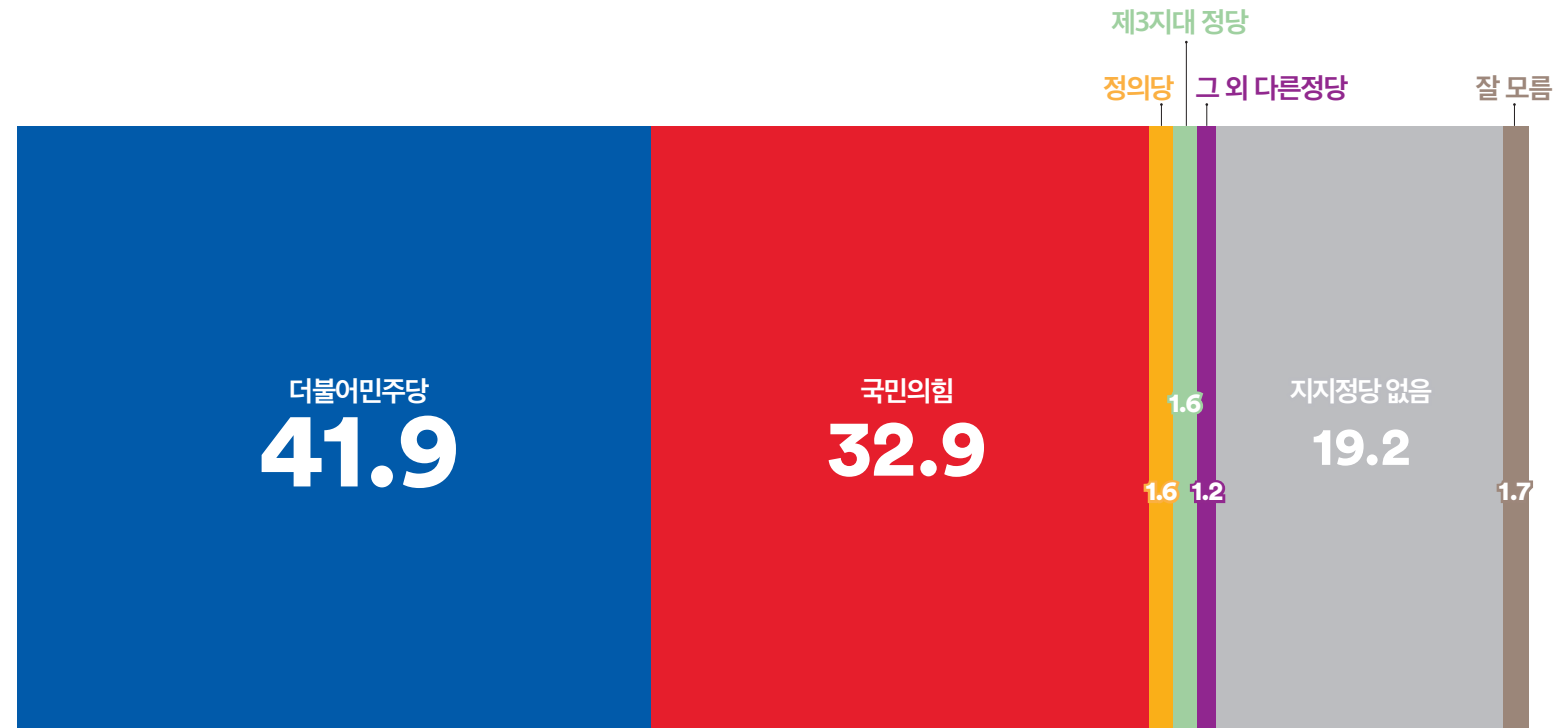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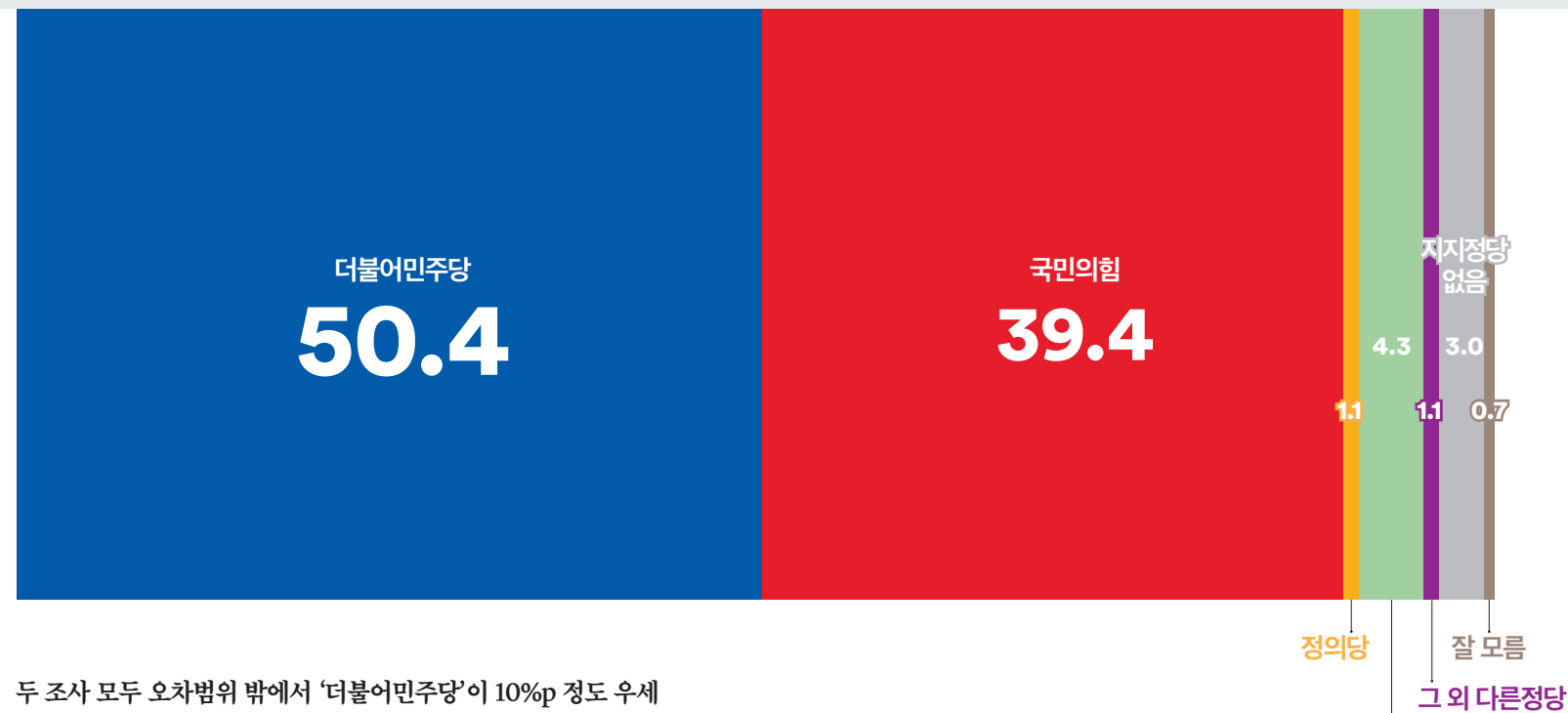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Q.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당이 승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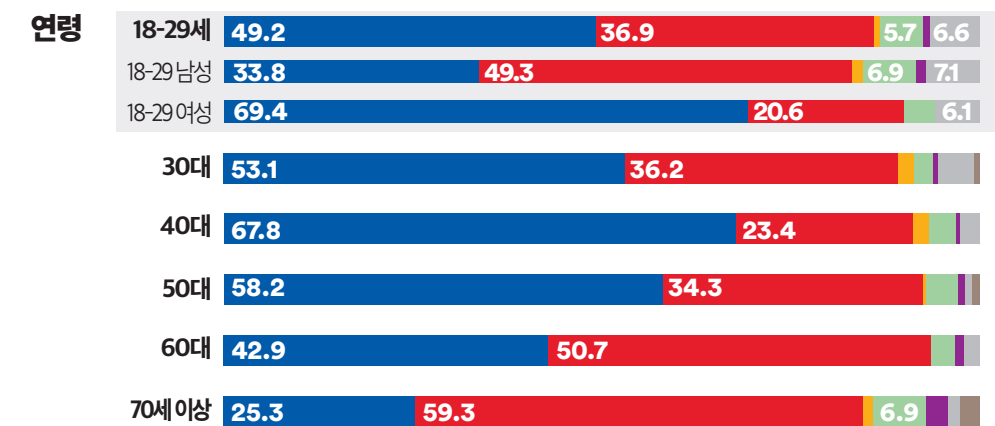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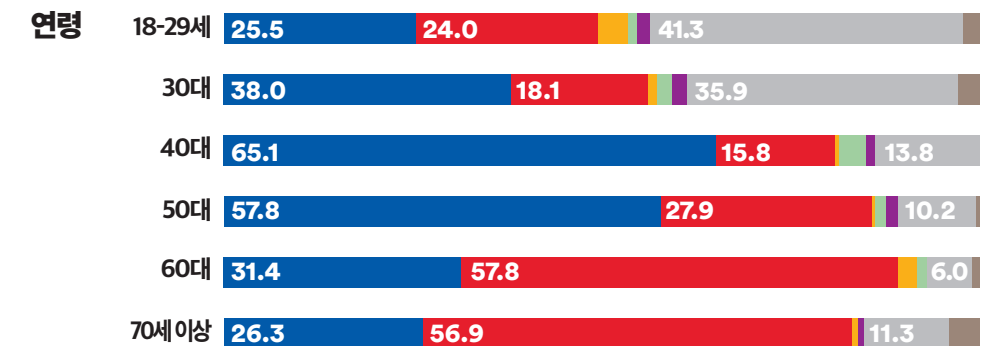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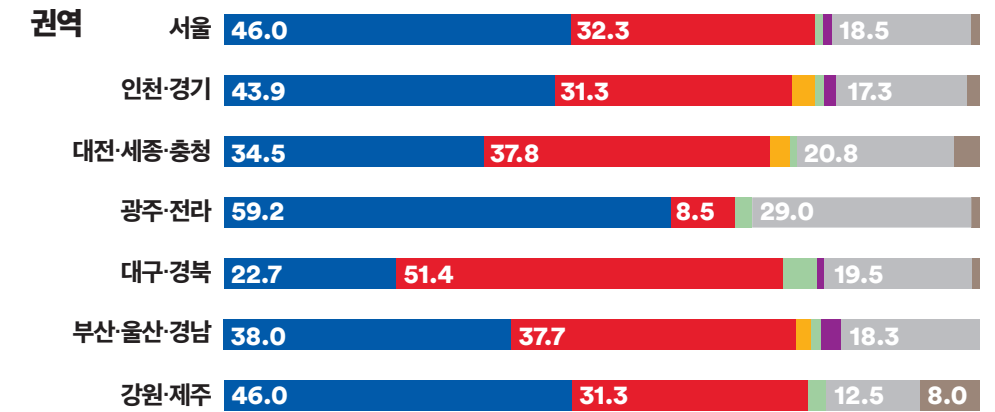


두 조사 모두 오차범위 밖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0%p 정도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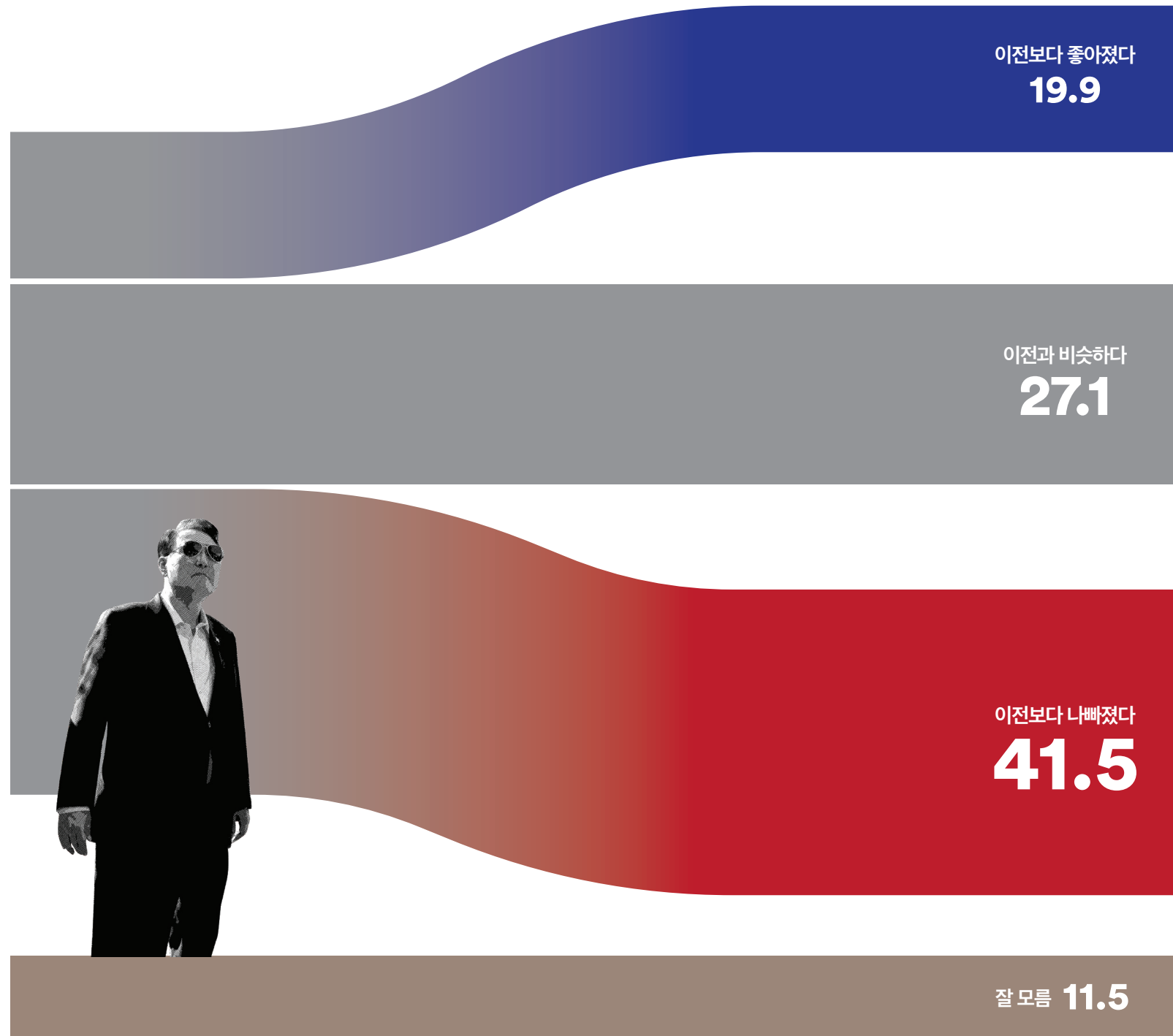
경인권과 호남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국민의힘' 대비 우세

TK에서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대비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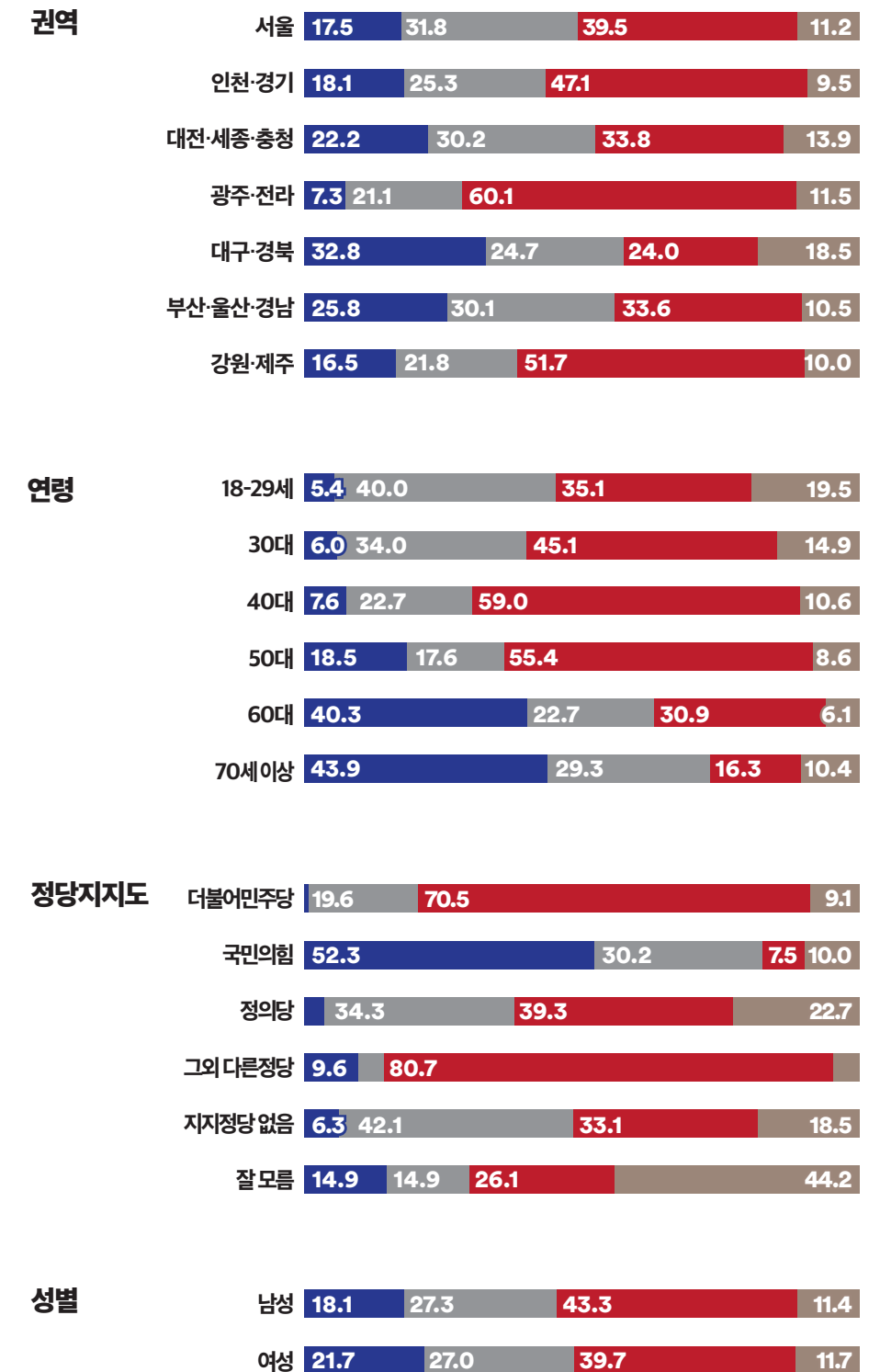
30~50대는 '더불어민주당',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이라는 응답이 우세



Q. 이번 추석연휴 기간 동안 접한 가족·친지·지인들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어떠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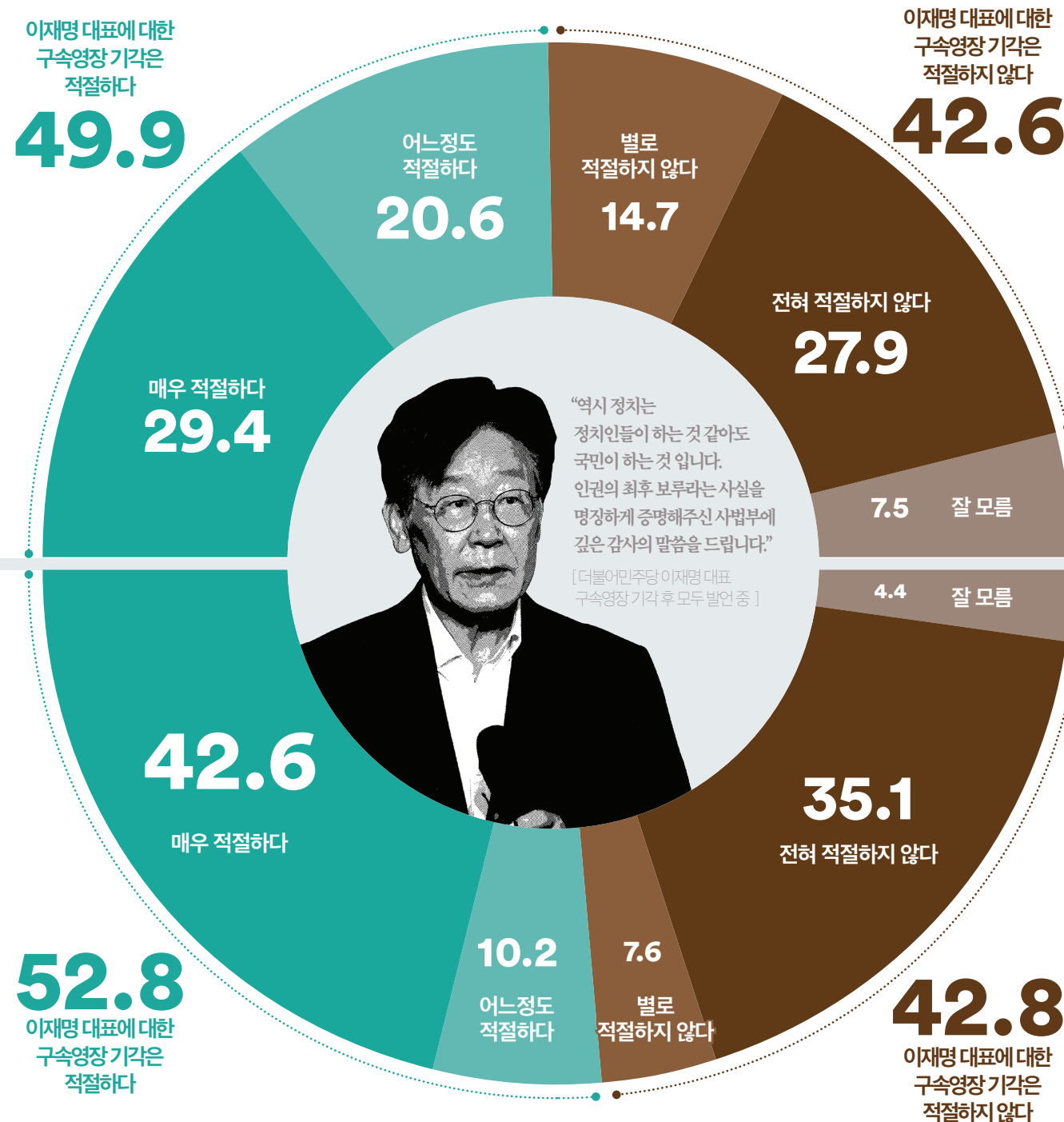
10명 중 4명 이상은 '이전보다 나빠졌다'고 응답해, '이전보다 좋아졌다'는 응답 대비 우세(격차 21.6%p)
 수도권과 호남, 강원·제주권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이전보다 나빠졌다'는 응답이 우세
 TK권에서는 '이전보다 좋아졌다'는 응답이 32.8%로 가장 많았음



이전보다 좋아졌다 이전과 비슷하다 이전보다 나빠졌다 잘 모름

Q.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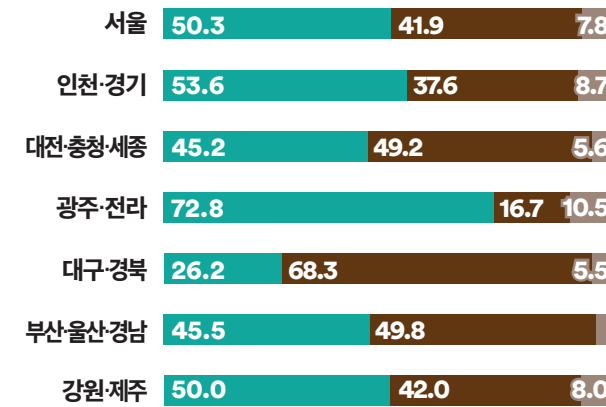


두 조사 모두 ‘적절하다’는 응답이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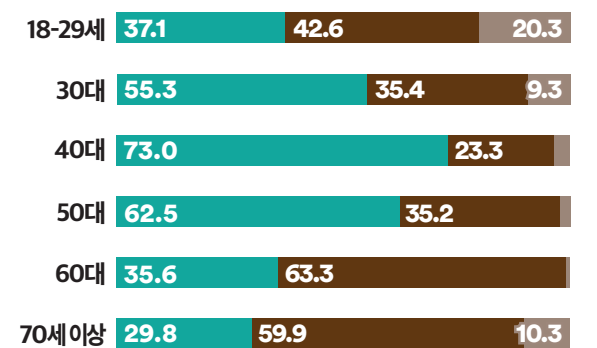
두 조사 모두 수도권, 호남권, 강원·제주에서는 ‘적절하다’, TK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앞섬

무당층은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반면, 중도층은 ‘적절하다’는 응답이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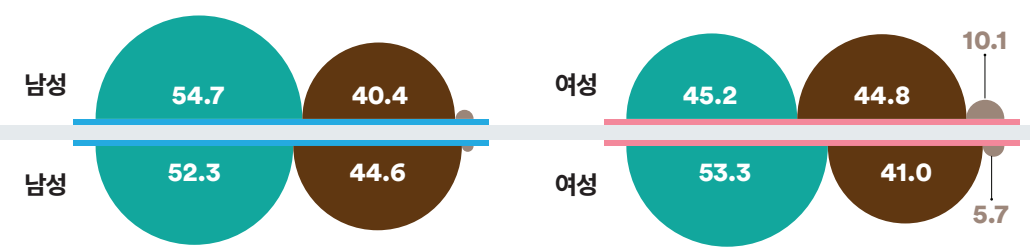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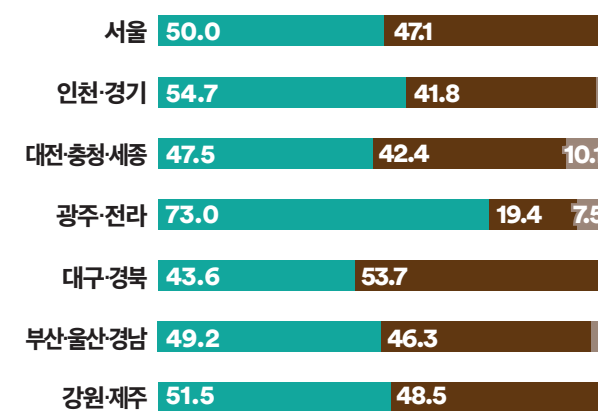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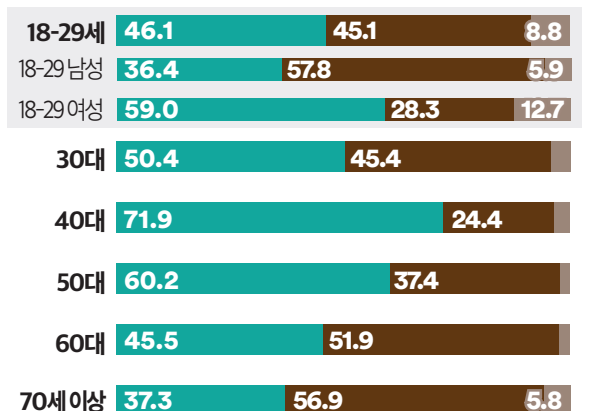
성별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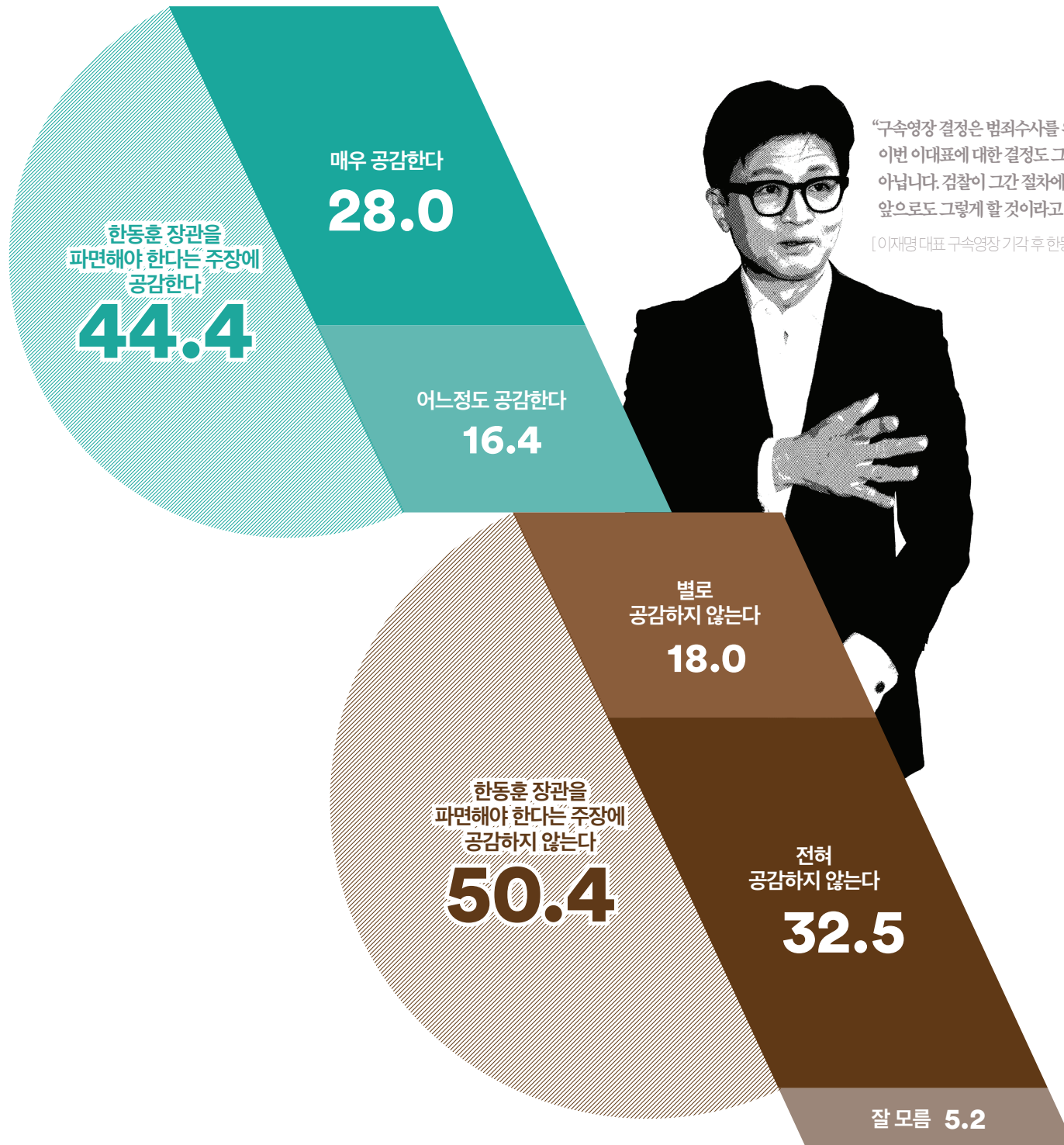
연령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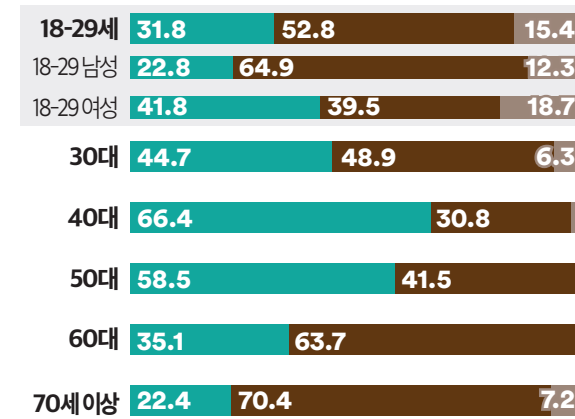


Q.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표적 수사와 무리한 구속 시도에 대해 이번 수사를 사실상 지휘한 한동훈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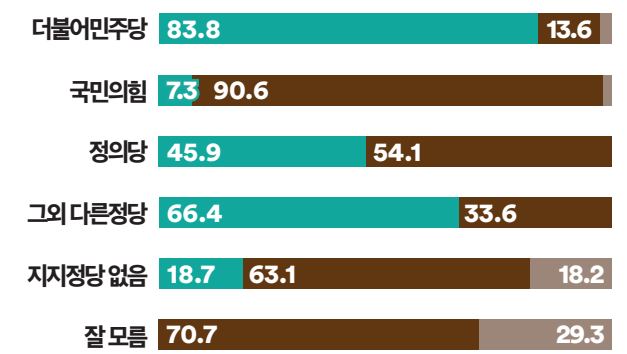


한동훈 장관 파면에 대한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0%p 더 높음
호남에서는 ‘공감한다’, 충청권과 TK에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우세
40·50대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우세, 20대·60대 이상에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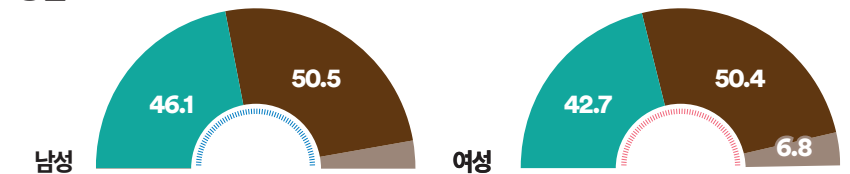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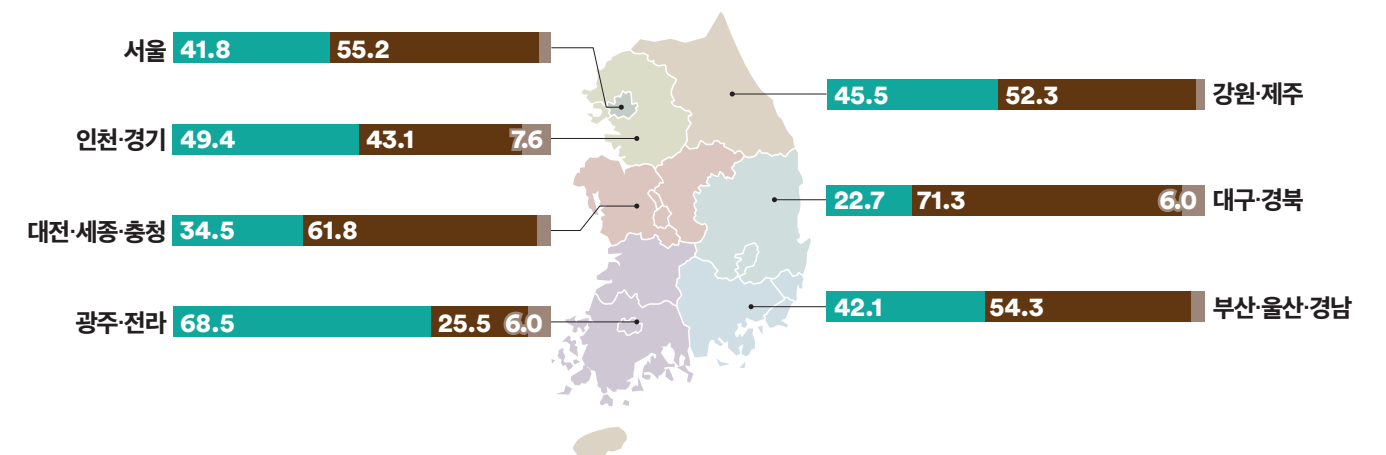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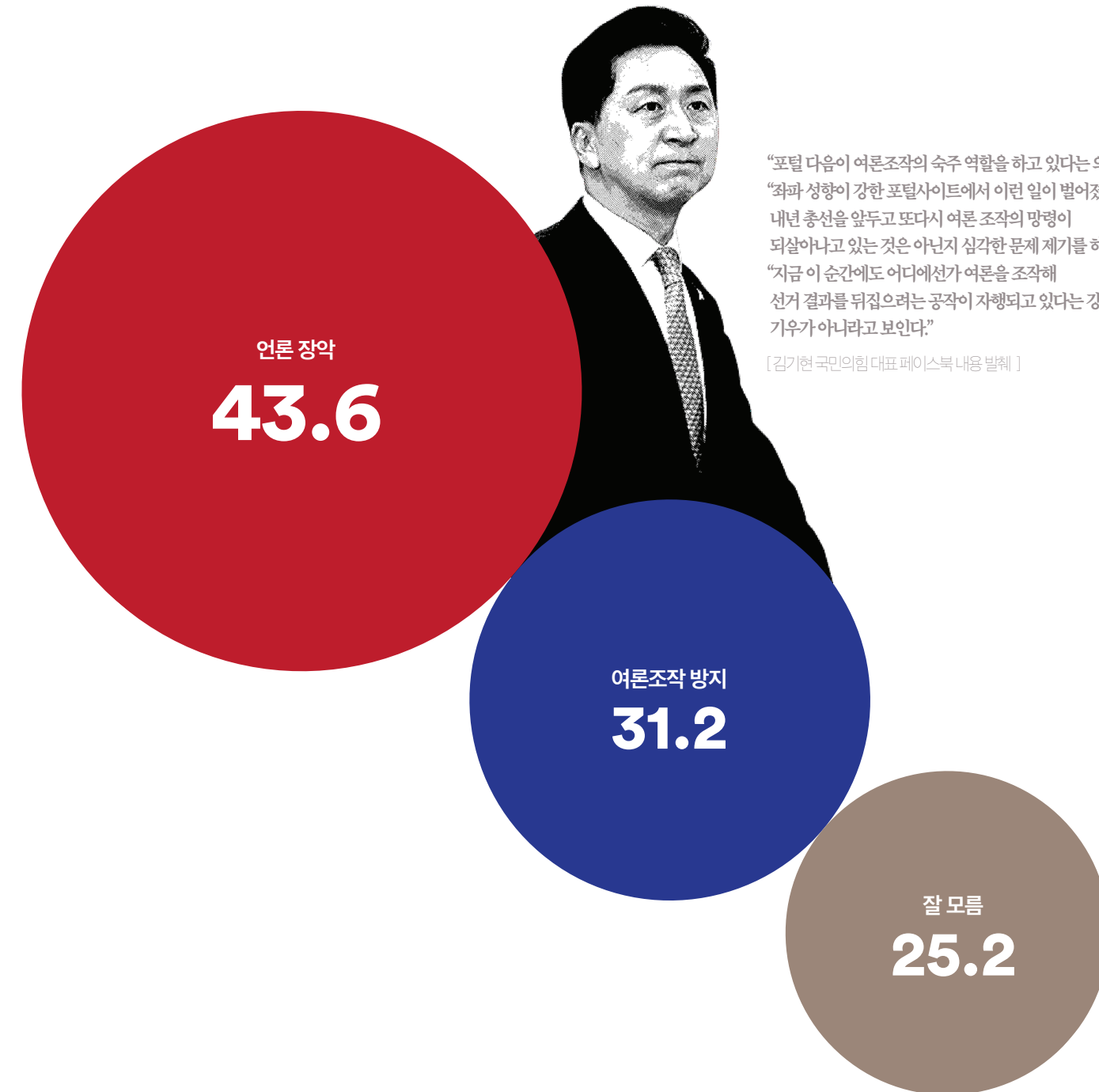
권역



공감한다 공감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발언 의도

Q. 포털 다음의 축구 클릭 응원에서 중국 응원이 높은 비율인 것을 두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포털 다음이 여론조작의 숙주가 되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의 의도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포털 다음이 여론조작의 숙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좌파 성향이 강한 포털사이트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여론 조작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여론을 조작해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공작이 자행되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이 기우가 아니라고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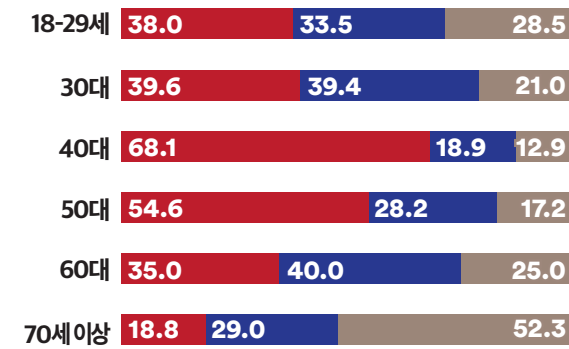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내용 발췌]

김기현 대표 발언의 의도에 대해 10명 중 4명 이상은 ‘언론 장악을 위해서’ 라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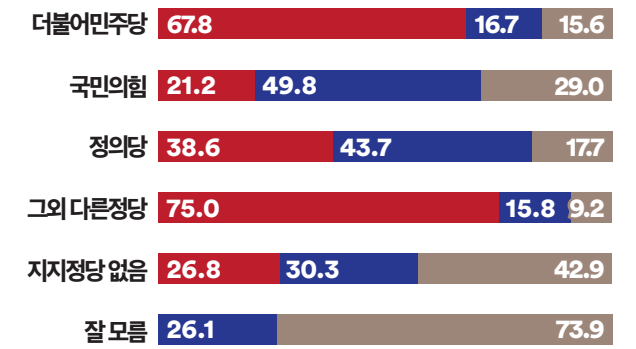
‘언론 장악’을 위해서라는 응답은 수도권, 호남, PK, 강원·제주 등 다수 권역에서 앞섬

무당층은 ‘여론조작 방지를 위해’라는 응답이 소폭 앞섰고(3.5%p), 중도층에서는 ‘언론 장악을 위해’라는 응답이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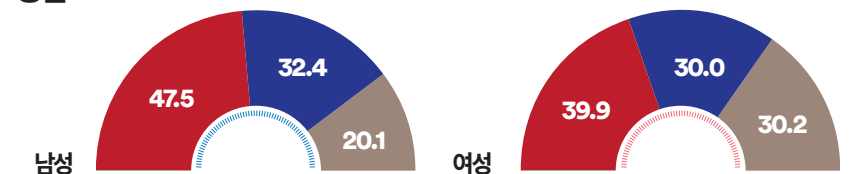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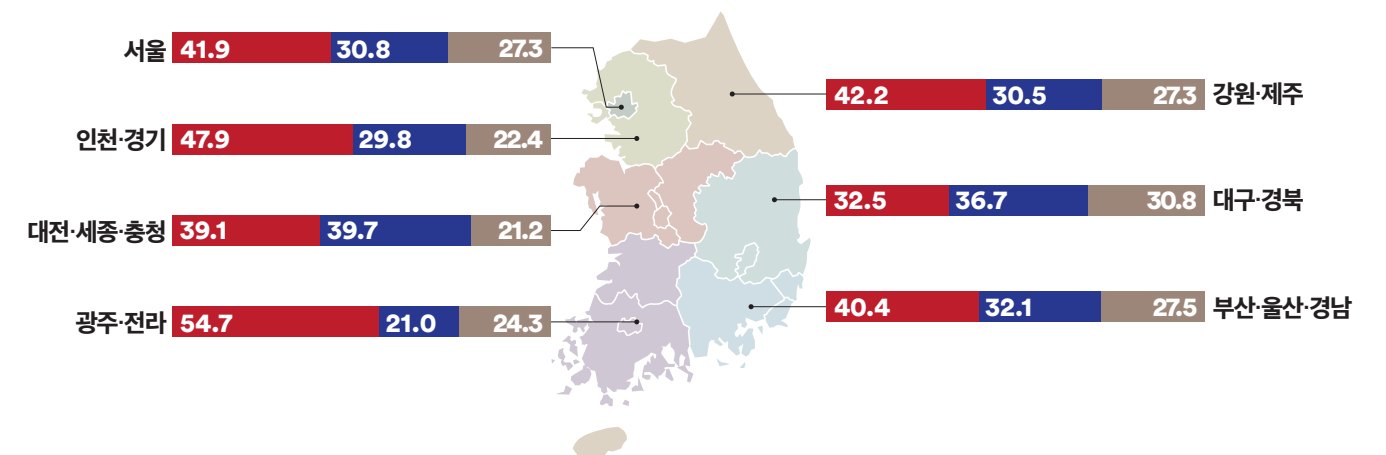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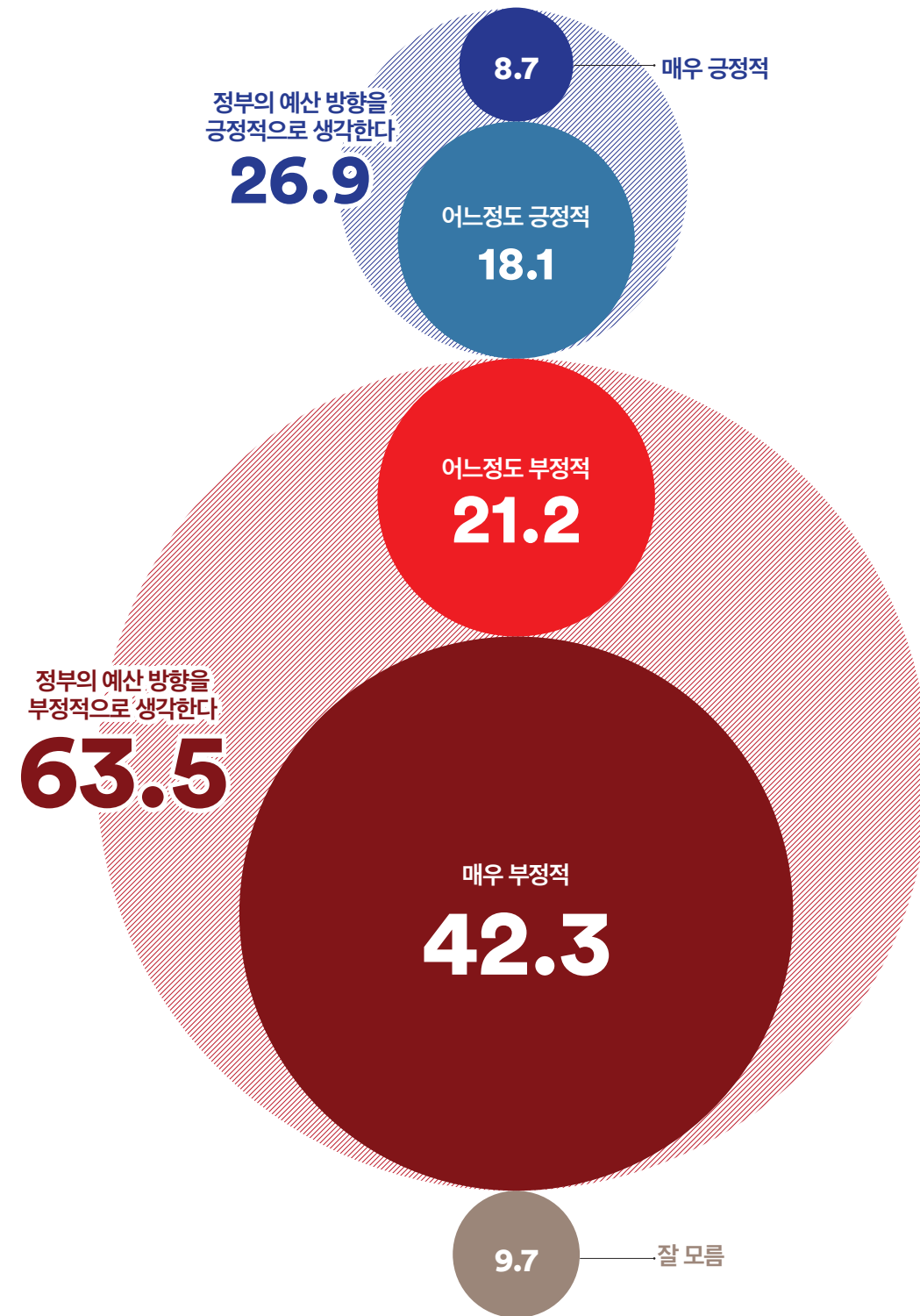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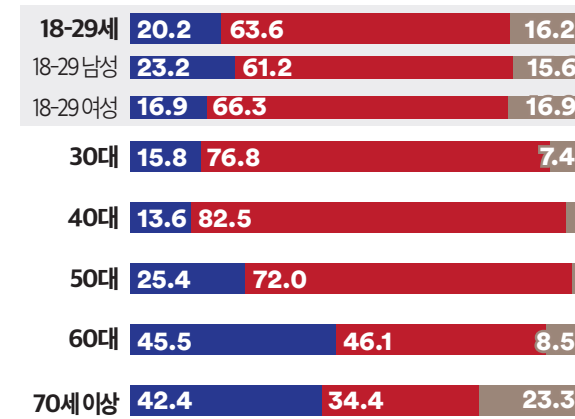
■ 언론 장악 ■ 여론조작 방지 ■ 모르겠다

Q. 정부가 카르텔을 이유로 과학기술 R&D 예산을 16.6%, 총 5조 2000억 원 가량 삭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예산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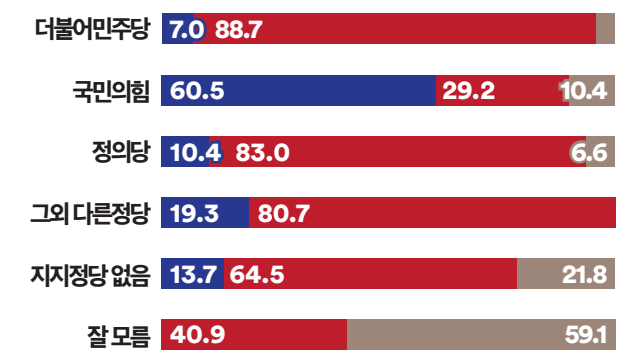


카르텔을 이유로 과학기술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정부 예산 방향에 대해, 10명 중 6명 이상은 '부정적'이라 응답
50대 이하 응답층 및 TK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부정적'이란 응답 우세
무당층과 중도층 모두 압도적인 비율(50%p)로 '부정적'이란 응답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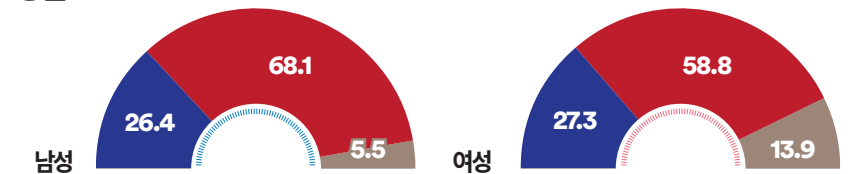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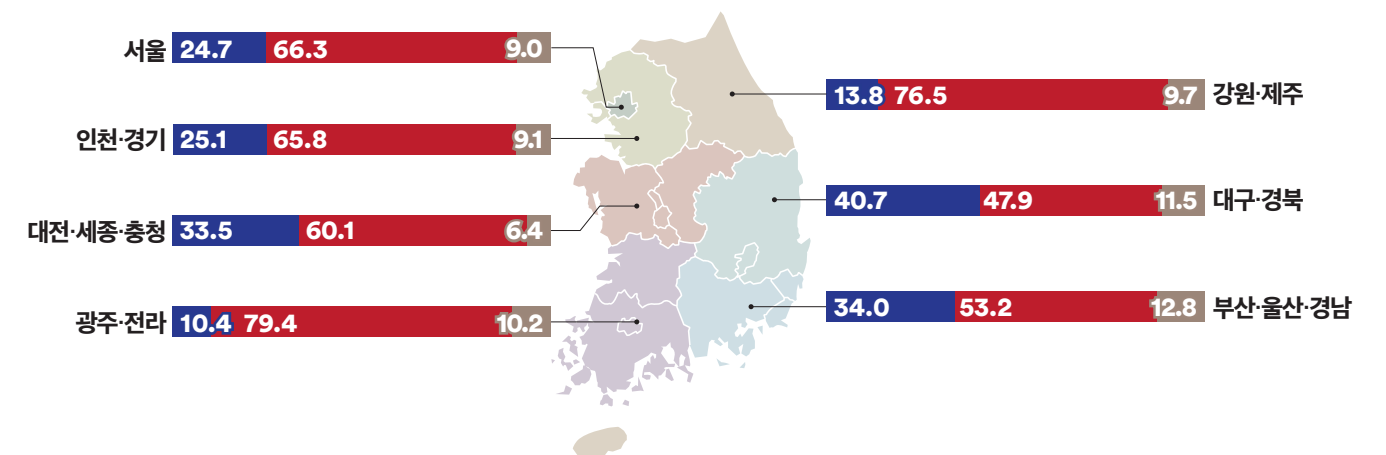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성별



권역



■ 긍정적이다 ■ 부정적이다 ■ 모르겠다

WWW.
FLOWERRESEARCH.
COM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WR_202310_01

여론조사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